

일찍이 무사들이 살았던 거리

시마바라성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일대를 덧포초라고 부릅니다. 덧포초는 시마바라성을 쌓을 때 함께 형성되었는데, 소총부대(하급 무사)의 주거 지대였던 것과 조성 당시 집과 집 사이에 담이 없어 마치 총의 통 속을 엿보듯 무가 저택 거리를 한눈에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덧포초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전해집니다.

7개의 거리는 바둑판 눈금처럼 형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녹봉 70석 이하의 하급 무사 저택이 690호 있었습니다.

거리 중앙에 흐르는 맑은 물은 북서쪽에 위치한 '구마노신사'에서 흘러오며, 마시는 물로 사용되었고, 미즈부교(물을 관리하는 관직)를 두어 엄중히 관리했습니다.

현재 보존되어 있는 시타노초의 부케야시키는 길이 406.8m, 폭 5.6m의 거리로, 야마모토 저택, 시노즈카 저택, 도리타 저택까지 세 채가 일반에 무료 개방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당시 무사들의 생활 모습을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케야시키 휴게소에서는 찰쌀 경단에 독특한 꿀을 뿐린 향토 음식 '간자라시'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시마 바라에

지금도 힘차게 솟아나며
마음을 편안히 해주는 용수가 있다



◎ 오시는 길 MAP ◎



◎ 교통 안내 ◎

- 시마바라항~구마모토항 구마모토 페리/약 30분, 규쇼 페리/약 60분
- 시마바라항~오무타시(미이케)항..... 고속선/약 50분
- 다이라항~나가스항..... 아리아케 페리/약 45분
- 시마바라~후쿠오카..... 고속버스/약 3시간
- 시마바라~이사하야~후쿠오카 시마바라 철도/(급행)약 50분~
이사하야역~JR/(급행)약 1시간 45분

◎ 문의 ◎

주식회사 시마바라관광부로

시마바라시 관광안내소 ☎ 0957-62-3986
시마바라시 덴슈카쿠사무소 ☎ 0957-62-4766

용수와 역사의 거리

시마바라 부케야시키

맑은 물을 가득 채워, 시마바라를 찬양하다

이곳은 시마바라 무사의 저택이 있던 자리

총을 주력으로 사용한 하급 무사 부대의 주거지였다고 하여 덧포초라 불렸고,
거리에는 깊은 정취가 느껴지는 돌담이 고즈넉이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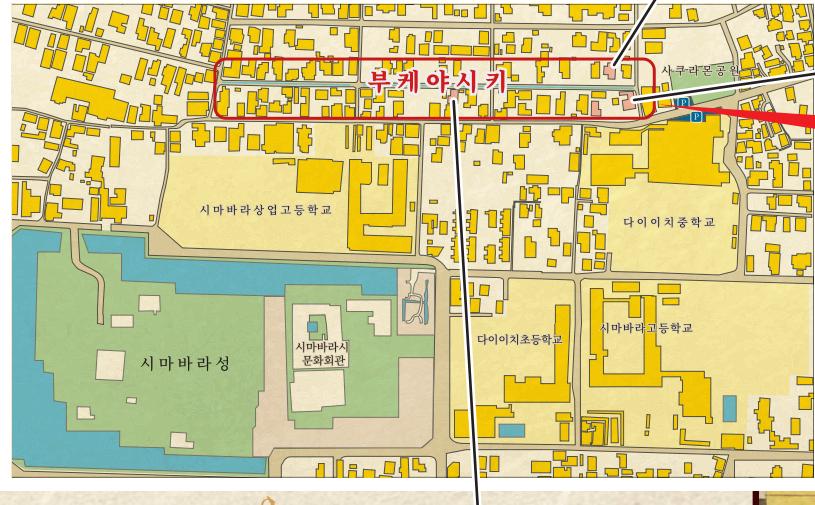
시마바라의 용수(湧水)를 이용한, 길 중앙의 수로
그 맑고 아름다운 물줄기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부케야시키 산책 지도]

시마바라성 외곽 서쪽에 하급 무사의 주거지가 건설되었습니다. 길이가 약 400m인 저택가로, 바둑판 눈금처럼 건물이 반듯하게 늘어서 있으며, 아시가루(화승총을 쏘는 무사)·소총부대가 살았다고 하여 ‘뎃포초’라고도 불립니다.

현재 지도



鳥田邸



자이모쿠부교·슈몬가타카야쿠·
후나쓰오라이방 등의 중직이
살던 저택

도리타 가는 마쓰다이라 번주의
초창기 이래부터 이어져 온
오래된 가문으로, 번주를 모시고
미카와코니 요시다, 단바노쿠니 후쿠치야마로 옮겼다가 1669년에
시마바라로 들어왔습니다.
역대 지방 대관·서기 등의 업무를 맡았는데, 막부 말기에는 자이모쿠부교
(재목 관리를 맡은 관직)·수몬카타카야쿠(기독교 탄압을 위해 종교 조사 등을
맡은 관직)·호나쓰오라이방(나루터 왕래 담당) 등의 직종에 종사했습니다.
도리타 저택은 지금도 보존되어 있으며, 저택 일부를 공개 중입니다.

부케야시키 매점

용수에 담가 시원한 라무네 등을 드실 수 있습니다

☎ 0957-63-1087



篠塚邸

시노즈카 저택



서기의 저택

이 저택에 살던 시노즈카
준에몬은 미카와(아이치현)
시대부터 마쓰다이라 번주의
가신이었으며, 번주를 따라
시마바라로 왔습니다.

메이지시대까지 11대를
계속했고, 주로 서기와 대관 업무를 맡았습니다. 저택은 지금도 보존되어
있으며 일반에 공개 중입니다.



山本郎

야마모토 저택



포술 사범의 저택



에도시대 후기의 지도



‘시마바라 벼사 저택 도면’ 하젠 시마바라 마쓰다이라문고 소장